

‘냉전, 분단 그리고 도시화’에 대한 토론문

안창모/ 경기대학교 건축학과

장세훈 교수님의 책 잘 읽었습니다. 장교수님의 책은 저의 주된 연구분야로 오래전부터 고민하고 있는 주제여서 관심 있게 읽었습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서 같은 주제를 고민하는 분의 연구를 접하는 것은 제가 갖고 있는 공부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경우가 많아 주의 깊게 읽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러한 점으로 인해 토론에는 기꺼이 응했는데, 토론문을 작성하려니 매우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급하게 작성하는 토론문이라 편의상 제 의견을 주제별로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장에서 심도 있게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1. 저술에서는 남과 북을 바라보는 상이한 시선이 동시에 나타나는 듯합니다. 책의 앞부분에서는 남과 북에 대한 묘사를 하면서 나타나는 표현의 편향성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를 묘사하면서 자본주의 특유의 활기와 번잡함이 넘쳐흐른다고 묘사하는데 반해, 북은 북이 당중심의 일관된 정책을 단조로운 일상생활과 획일적인 도시 풍광으로 설명합니다.

이러한 시선은 제8장의 '발전주의 국가의 강압적 도시화와 서울 판자촌의 명멸'에서 보이는 문제의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가 글을 서술하는 시간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생각의 변화에 기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남과 북의 도시를 비교하는 시선을 '우리 도시와 유럽의 도시를 비교한다면' 그리고 '북의 도시와 유럽의 도시를 비교'한다면 어떻게 표현될까를 생각해 보면 장선생님의 시선의 객관성에 대해 의문을 갖게 됩니다.

2. 평양은 대외 전시용 도시인가?

평양이 북의 체제를 대표하는 도시임에 틀림없고, 자신들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한 도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본 주제의 저술에서 '평양은 대외 전시용 도시'로 규정하는 것은 독자로서 하여금 착시현상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북의 도시화는 남의 도시화와는 달리 목적하는 바가 뚜렷합니다. 이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체제가 전환되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선택한 체제의 우월함을 드러내야 하는 당면과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목표를 설정했고 목표 달성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러나 남의 도시화는 북과는 다른 상황 속에 놓였습니다. 해방은 되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체제가 유지되었던 남한의 경우 북한과 같은 지향점이 없었습니다. 남한 도시계획의 지향점이 생긴 것은 북한과는 시기가 다릅니다.

평양은 대외선전의 목적도 있지만 동시에 북의 모든 도시가 따라야 할 모델도시였습니다. 선택과 집중에서 가장 먼저 집중적으로 재건된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3. 이상과 현실의 괴리

북의 도시계획은 분명히 사회주의의 이상에 기초해서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전후 재건시에 북한 당국은 '대도시가 자본주의 사회악의 온상'이라는 사회주의자들의 생각을 공유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사고에 기초해서 평양을 비롯한 각 도시의 재건계획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던 현실 경제와 기술의 문제로 이상을 모두 실현할 수는 없었지만, 장 선생님이 지적하신 괴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듯합니다.

북에서도 장 선생님이 지적하신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인식했을까요? 있었다면 그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에 대해 아시는 바가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4. 탈북자를 중심에 둔 북한 도시의 도시화 연구의 한계

탈북자들이 갖고 있는 도시 정보는 매우 생생하고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지만, 모집단의 수와 탈북자의 연령과 탈북시기 등에 따라 매우 큰 차이가 있어 자칫하면 사실과 다른 해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5. 식민잔재의 청산과 도시

북에서 식민잔재의 청산이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치적 구호수준을 크게 넘어서지 못했다고 지적하셨지만, 해방전 건물이 해방전 건물이 남아있다는 것이 식민잔재를 청산하지 못했다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식민도시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어떻게 진단하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노력했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북에서는 전후 재건과정에서 식민지 도시구조의 문제를 개선하려는 뚜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해방직후 평양에서 공공건물을 한 곳에 집중시키려고 하지 않은 시도나 하천의 범람문제 해결을 매우 중요하게 다룬 것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보통강개수계획과 지방도시의 하천 정비가 그 예입니다.

6. 선형도시에 대한 오해

청진시의 예를 통해 식민지 도시구조의 문제를 설명하는 것과 '선형개발, 직주근접, 공업화건설의 한계'를 지적한 내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부연설명이 필요합니다.

도시 안에서 간선도로망을 따라 주요 건물을 배치하는 것이 선형개발방식이 아니다. 이러한 해석은 '이전의 빈약한 지식에 기초한 도시와 건축에 관한 연구'가 본 저술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입니다.

각 분야의 기초연구의 부족은 동일 분야는 물론 타 분야에서 잘못 인용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냉전시대에 부족한 정보와 냉전논리에 기초해 만들어진 기초연구는 재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7. 주체사상과 도시공간재편

329쪽에서, 1950년대말의 종파사건에서 1980년의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 내용을 담자는 내용으로의 도약은 너무 심한 비약입니다. 결과론적이고, 내용도 맞지 않습니다.

북한 담론에서 주의해야하는 것이 김일성 김정일의 '현지교시'라는 표현과 내용인데, 이 문제는 도시와 건축 문제에서 특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습니다.

북한의 도시를 이야기하면서 지나치게 현재의 판단기준으로 북한의 도시화를 이야기하면 각 시대별 중요 전환점의 문제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8_ 전혀 다른 듯 하지만, 같은 모습? ... 여전한 외눈박이식 관점

63빌딩과 유경호텔, 5.16광장과 김일성광장, 세종문화회관과 인민문화궁전 등 대규모 건축과 도시공간의 경쟁하고 전쟁에 대비한 시설 등을 통해 요새도시, 병영도시의 공통점이 있다고 지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의 모습이 비슷한 듯 하지만 등장배경과 이들을 통해 얻고자하는 바가 전혀 달랐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이 핵심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아니, 설명은 하지만 설명의 방법이 매우 단순합니다.

저자는 '외눈박이'식 해석에서 벗어나 '냉전과 분단'에 주목해서 남과 북의 도시화를 새롭게 해석했고 흥미로운 관점을 제시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외눈박이'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무차별적인 철거와 일방적인 규제라는 표현은 남과 북 중 어느 곳에 적합한 표현일까?

> 주민이 배제된 도시화의 모습은 어디에서 나타나는 모습일까?

답은 남과 북 모두지만 남과 북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이유가 다르다.

9_ 남과 북의 요새도시/ 전쟁도시의 모습

남: 공습에 대비해서 터널, 한강다리, 고층건물 옥상의 대공포대, 구릉 위의 입간판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시가전에 대비해서 교차로의 거짓 벽체, 화단 등이 나타나는 배경에 분단이라는 큰 틀이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는 1.21사태가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린 시절 익숙한 풍경의 하나는 주요한 지역에 위치한 미군부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쳐다볼 수 없거나 접근할 수 없는 곳 그리고 사진촬영은 엄두도 낼 수 없는 곳이 시내 도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풍경은 냉전이나 분단의 풍경이 아닙니다....

이에 반해 북에서는 전재복구계획에서 또 다른 전쟁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북: 공습에 대비해서 널찍한 건물 간격, 땅 속 깊은 곳에 건설된 지하철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10_ 남과 북의 경쟁구조

1970년대까지는 남이 북을 의식했고, 경쟁상대로 삼았으며.

1980년대 이후에는 북이 남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남은 북을 더 이상 의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남측에서 대규모 건축과 건설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평화의 댐이나 독립기념관과 그리고 지방 주요도시에 건설된 문화시설들이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들 시설은 북을 향한 것이 아니라, 남한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궁극적으로 쿠데타로 집권한 자신의 정권 유지를 위한 차원이었습니다. 이는 시대적 상황은 달랐지만, 박정희정부가 자유센터 등을 건설하면서 정권의 안정적 기반을 닦으려는 것과 유사합니다.

1960년대에는 북을 내세워 자신의 권력기반을 정당화하려고 했지만,

1980년대에는 북 이외에 일과 삶의 질을 권력기반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남한과는 달리 북한에서는 1970년대까지는 남한의 도시와 건축을 별로 의식하지 않았지만,

1980년대 들어 남한을 본격적으로 의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88올림픽을 의식한 1989년의 세계학생청년축전과 이를 준비하면서 만들어진 도시와 건축입니다.

11. 도시빈민의 문제에 대응하는 도시와 주거정책

1960년대부터 본격화된 무허가 주택의 일방적 철거와 집단이주정착지 조성 사업 그리고 현지개발방식의 전개 방식은 공교롭게도 일제강점기 방식의 반복이라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12. 1980년대 교외화 현상

1980년대의 교외화는 1960년대 시작된 교외화와는 구분해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